

구윤철 부총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기념 증권사 현장방문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초기 성과 점검 및 금융현장 의견 청취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출시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4.3(금) NH투자증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 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기념 증권사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 '26.4.3(금) 15:00 / NH투자증권 본점(서울 여의도)
- 참석자 : 구윤철 부총리,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이재경 NH투자증권 부사장 등

구 부총리는 먼저 영업점 창구에서 국내시장 복귀계좌 가입절차, 상품특징 및 절세혜택 등에 대해 설명을 직접 들으며 상담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았다. 이후 금융투자협회 및 NH투자증권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는 계좌 가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투자 수요와 시장 반응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시장 복귀계좌가 출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복귀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출시 십일여 만에 약 9.2만개 계좌가 개설(4.2일 기준 잔액 약 3.2억불)되는 등 의미있는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제도가 조속히 안착하여 실질적인 국내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에서 상품 안내와 홍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1분기 무역흑자가 498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3월 말부터 본격적인 WGBI 자금 유입 등으로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크게 확대(3.30일~4.2일 약 32.4억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내시장 복귀계획 출시 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 증가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외환안정 세제 3중세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시장교란·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총괄>	국제금융국 외환분석과	책임자	과 장	손선영 (044-215-7680)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kyu1019@korea.kr)
담당 부서	세제실 금융세제과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15-4230)
		담당자	사무관	남원우 (namwonwoo@korea.kr)

